中國語文學 第56輯(2010. 12) 275-304쪽

중국어 개사구조의 주관화 연구*

김 정 필**

<目 次>

Ⅰ. 서 언
Ⅱ. 부사어의 주관성 표현과 개사구조
1. 부사의 어휘의미와 주관성
2. 어기범주와 부사어의 주관성
3. 시간성 특징과 부사어의 주관성
4. 보어와의 어순대비를 통한 부사어의 주관성
Ⅲ. 개사구조의 어법기능과 주관화
1. 개사의 어법기능과 주관화
2. 개사구조의 배경화와 주관화
Ⅳ. 특수구문과 개사구조의 주관화
1. '把자문'의 주관성 표현
2. '被자문'의 주관성 표현
Ⅴ. 결 어

Ⅰ. 서 언

인지어법에서의 '주관화'란 '객관적으로 파악되고 있던 것이 객관성을 서서히 잃고 원래 내재되어 있던 주관적인 파악만 남게 되는 의미변화", 혹은 "화용론적 추론의 관습화에 의해 의미가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신념·태도에 기초하게 되는 것"[1]으로 파악된다. 중국어에서 개사(전치사)화[2] 과정은 본래 동사가 지니는 구체적 동작성과 시간성이 상실되는 주관

* 이 논문은 200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분야(KRF-2008-A00482)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경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1) 첫 번째는 Langacker(1990)의 주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Traugott (1995)의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 Y. Tsuji 편, 임지룡 외 옮김 ≪인지언어학키워드사전≫(한국문화사, 2004) p.207. 참조.

www.kci.go.kr

화 현상으로, 이러한 개사의 특징은 주관화의 형식기제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최근 인지어법에서 연구되는 전치사에 대한 분석은 주관화에 근거한 재분석으로, 구문에서 개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개사(전치사)는 영어를 비롯한 인구어나 중국어와 같이 '술어+목적어'의 어순을 가진 언어에서 나타나는 어법범주로, 주관화는 'PP+NP'로 구성된 개사구조가 대개 부사어로 기능하면서 나타나는 개사의 허화, 즉 개사화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3] 중국어에서 부사어 기능의 개사구조는 'NP1+VP1+NP2+VP2[+VC(O)]'의 구조방식을 가지며, '개사구문'과 '특수구문'의 두 가지 각도로 구분해 볼 수 있다.[4] 이 두 구문은 교학어법에서 '개사구문'은 초급단계의 난이도를 지니는 반면, '特殊句式'으로 불리는 '특수구문은' 고급 단계의 난이도에 설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특수구문'의 '개사구조'는 단순히 부사어라는 기능적 특징보다는 구문의 의미·화용적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로서 파악되고 있으며, 'V1'의 기능화 정도에 따라 '連動文', '兼語文', '把字文(처치문)', '被字文(피동문)' 등으로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다. 비록 중국어의 이러한 '특수구문'을 '개사구문'이 아닌 또 다른 파생구문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VP1+NP2+VP2'구조가 가지는 형식적인 측면이나 'VP1+NP2'가 가지는 기능적 측면은 여전히 '개사구조'라는 측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여기서는 영어의 전치사 또한 설명의 일관성을 위해 '개사'로 지칭한다.

3) 특히 부사어에 위치하는 개사구조의 인지적 기제는 바로 구문의 배경(바탕)을 전제하는 곳으로 주관성을 표현한다. 사실 화자의 주관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관찰자의 시각이나, 조건, 가정, 그리고 어기 부사(難道、究竟、也許、的确)가 모두 부사어의 위치에 위치한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주+목+술'의 언어에서는 대개 조사로 실현되는데, 최근 개사연구에서 술어의 후미에서 '후치개사'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는 것도 후치개사의 '개사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4) 물론 '개사구문'과 '특수구문'의 차이는 'NP1+VP1+NP2+VP2[+VC(O)]'에서 [+VC(O)]의 선택유무에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VP1+NP2'의 어법기능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www.kci.go.kr

중국어 개사에 대한 연구는 크게 품사적 특징, 기능적 특징, 그리고 분포적 특징의 세 가지 각도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의 개사연구는 대개 어법기능에 기초하여 품사적 특징을 개괄하는데 치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개사의 품사적 특징은 비록 허사로 분류되지만, 조사 등과 같이 완전한 기능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어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대개 조사가 「A+조사+B」의 관계에서 허화가 일어난다면, 개사는 오히려 「개사+A+B」의 관계를 통해 후행하는 목적어(전치사목적어)를 지배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동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두 번째는 기능적 측면에 볼 수 있는 개사의 문제는 문법화[5]의 완성도이다. 최근 중국어의 개사연구는 술어 뒤의 보어성분으로 나타나는 개사구조의 개사는 이미 한 단계의 기능화를 거친 술어의 형태소 성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은 후치개사가 개사로서의 자격성이 상실됨과 동시에, 품사로서의 자격 또한 상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6]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어 공인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사의 문법화뿐만 아니라, 개사구조의 분포위치가 부사어에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세 번째 중국어 개사구조의 분포위치는 주어 앞의 문두에 존재하는 화제성분과 술어 앞의 부사어, 그리고 술어 뒤의 보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먼저 문두의 개사구조는 화제, 주어, 문두부사어 등 여러 가지 주장이 존재하나 모두 술어의 앞에서 행위동작의 조건이나 배경 등 부사적 기능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보어기능의

5) 여기서는 인지어법의 주관화와 기능화를 포함한다.

6) 이러한 주장은 'V+X+NP'구조를 'V+[X+NP]'의 관계인 '술보구조'가 아니라, '[V+X]+NP'의 '술목구조'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들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개사로 규정되는 'X'를 문법화된 '형태소(詞綴)'로 보며, 'NP'를 단독목적어로 봐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林華東・蔣艷(2005)에서 상세하게 정리되고 있는데, 陳昌來(2002), 石毓智(2002) 등에서도 비록 전면적이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견해들이 존재한다.

www.kci.go.kr

개사구조 또한 최근 개사의 기능화와 관련하여 여전히 의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재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連……都 / 也' 등의 강조용법이나 '특수구식'의 형성 등을 볼 때, 개사구조는 부사어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술어에 선행하는 개사구조가 전형적인 형식임을 전제한다. 아울러 부사어의 분포위치는 주관화를 일으키는 조건이나 배경이 되며, 개사구조는 주관화의 형식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세부적 과정으로, 우선 개사화의 근원적 원인은 개사구조가 부사어로 기능함으로써 주관성을 표현하게 되며, 아울러 개사의 주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째, 부사어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주관성을 표현하는지를 파악하며, 둘째 허사로서의 개사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주관화 되는지에 대한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하고자 한다.[7)]

Ⅱ. 부사어의 주관성 표현과 개사구조

1. 부사의 어휘의미와 주관성

우선 부사가 구문을 통해 표현하는 의미의 주관성 강약은 주어의 인칭, 부사의 종류, 그리고 수식하는 술어의 특징에 따라 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특히 정도부사와 같이 어휘 자체로서 함유하는 '정도'의 강약은 주관성을 표현하는 데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분포위치가 나타내는 주관성과 객관성의 차이는 번역과정에서도 그 정도성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영어의 부사어와 중국어의

7) 여기서 비교해 보아야 할 점은 중국어에서는 부사어의 위치가 영어와는 달리 술어 앞에 존재하는 것이 전형적이라는 점과 대부분의 개사는 동사로부터 문법화를 거쳤다는 점 또한 주관화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여기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로 미루고자 한다.

www.kci.go.kr

보어는 비록 정도를 표시하고 있지만, 모두 술어에 후치한다는 공통성으로 인해 그 의미의 경향성은 오히려 객관화에 치우치는 면이 있다.[8] 특히 중국어의 보어는 대개 행위동작 이후의 결과나 상태(목적어의 상태)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부사어에 비해 더욱 객관적으로 묘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음과 같이 인칭의 변화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고찰할 수 있다.

(1) I am missing you terribly!
(2) 我可眞是想死你了。
(3) 他可眞是想死你了。
(4) 他眞的很想你。

예문(2)에서는 주어가 일인칭으로 '想'의 주체가 화자가 됨으로써 보어 '死'가 표현하는 정도를 '주관성'과 연계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만약 예문(3)처럼 주어를 삼인칭으로 바꾸면, 보어 '死'가 표현하는 정도는 동사 '想'의 결과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며, 화자의 주관성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드러나지 않는다.[9] 만약 예문(1)의 구문을 예문(4)와 같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보면, 예문(1)의 부사어 'terribly'의 의미는 예문(4)의 중국어의 부사어 '眞的'를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 이때의 의미는 '死'와 같은 결과성과는 다른 '想'에 앞서 나타나는 화자심리를 통한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결과성을 나타내는 보어와 대비시켜 볼 때, 부사어의 분포위치가 나타내는 인지적 기제는 바로 '주관성' 표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구문전환를 통한 부사어의 주관성 강약과 의미제약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상태부사나 情狀부사는 文頭나 文尾 등으로 어순도치가 일어나면서 서로 다른 화용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도치

8)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주관성의 객관화'로 주장하고자 한다.
9) 예문(3)은 중국인의 언어적 습관으로는 비합법적인 구문으로 볼 수 있지만, 예문(2)의 대비적 설명을 위해 사용하였다.

www.kci.go.kr

를 통해 표현되는 의미를 '강조의미'로 설명한다.

(5) a. 天漸漸地黑下來了。
b. 漸漸地, 天黑下來了。
c. 天黑下來了, 漸漸地。

일반적으로 예문(5)의 a, b, c 중에서 가장 강한 어기를 표현하는 구문은 c라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부사어가 가장 강한 주관성을 표현하는 위치는 의미제약의 범위가 가장 큰 문두이며, 그 다음은 문중의 부사어가 된다.10)

(6) a. 他非常喜歡柳永的詞。 → b. *非常他喜歡柳永的詞。
(7) a. 我們班的同學全都來了。→ b. *全我們班的同學都來了。

대개 분포위치에 따른 의미역의 차이 또한 주관성의 강약을 다르게 나타낼 수 있는데, 시작점(源點), 과정(途經), 종착점(終點)의 차이에 따라 그 어순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시작점을 표시하는 의미항을 지닌 성분은 대체로 동사의 앞에 오게 된다. 위의 예문은 심리동사가 술어를 담당하는 구문으로, 정도부사나 범위부사 등의 주관성을 표현하는 부사는 이러한 위치 이동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주관성 또한 일종의 심리현상으로, 심리동사가 표현하는 심리현상 속에는 단순히 주어의 심리현상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화자의 주관성이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0) 물론 부사어가 수식하는 술어가 어떠한 종류의 동사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미제약을 받아 표현하는 의미 또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www.kci.go.kr

2. 어기범주와 부사어의 주관성

본 절에서는 부사어의 주관성 분석을 기존의 어기범주를 주관성 분석과 연계해서 분석해 보려고 하였다. 사실 '주관성'이 최근의 인지어법에서 주된 연구대상으로 파악됨으로써 마치 인지어법의 전용물처럼 보이지만, 전통언어학에서도 주관성의 범주를 절대적으로 간과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전통언어학의 '어기범주' 또한 기능화의 범주에서 보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주관성의 의미적 특징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어기범주'는 문미의 '어기조사'나 문두의 '어기부사'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들의 분포위치가 문두와 문미로 제약을 받는다는 점은 구문 내부의 특정성분과 논리적인 의미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나 약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어기범주 가 문두에 분포하느냐 혹은 문미에 분포하느냐에 따라 주관성 강약의 차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분포위치가 주관성 강약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나 형식기제라는 근거이다.

우선 기존의 어기범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면, 申小龍(1991)은 중국어의 모든 기능어(허사)를 어기와 연관시키고 있는데,[11] 기존의 형태중심의 언어연구에서 기능어의 표현이 화자의 어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또 어기범주를 전문적으로 다룬 齊滬揚(2002)나 李杰(2005) 등은 부사어와 연관된 어기부사의 기능을 '情感功能'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齊滬揚(2002)은 어기부사가 표현하는 '情感功能'을 '의지어기'라는 이름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다.[12] 또 李杰(2005)는 인지어법에 근거하여, 어기부사가 표현하는 '情感功能'을 '명제의 허실에 대한 추론', '사물의 특징에 대한 평가', '개인의 감정표현'의 세 가지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13]

11) 申小龍 ≪語文的闡釋≫, 遼寧教育出版社. 1991. pp.46-84, 참조.
12) 齊滬揚 <論現代漢語氣系統的建立>, ≪漢語學習≫ 2002年2期 참조. 여기에서 표현하는 '情感功能'은 작금의 '주관성'과 결부시켜 볼 수 있다.
13) 李杰(2005) <試論現代漢語狀語的情感功能> p.10.

www.kci.go.kr

(8) 究竟你去還是他去?
(9) 難道你一直不知道嗎?
(10) 也許他已經走了。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어기부사의 주관성 표현인 힐난의 태도(예문(8)의 究竟), 반어적 태도(예문(9)의 難道), 추측의 판단(예문(10)의 也許)은 모두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화자의 어기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예문(9)에 존재하는 어기부사 '難道'와 어기조사의 '嗎'는 모두 넓은 의미의 '의문어기'와 연관이 있지만, 어기부사와 어기조사가 표현하는 주관성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14]

3. 시간성 특징과 부사어의 주관성

언어구조의 분석에서 시간성 원칙은 두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간순서원칙(PTS, The Principle of temporal sequence)'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The one-dimensionality of time)'이다[15].

첫째,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은 하나의 구문에는 하나의 중심술어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은 본래 '술목구조'였던 개사구조가 또 다른 술어의 부사어로 기능하면서 선행동사의 서술능력이 상실됨과 동시에, 개사는 기능화의 길을 가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16]

14) 필자(2006a)에서는 부사어가 표현하는 주관성을 '화자주관성'으로, 어기조사가 표현하는 주관성을 '기능주관성'으로 구분하였다.
15) '시간순서원칙'은 戴浩一(1988)을 참조하였으며,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은 石毓智(2001)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16) 하지만, 현재의 분석처럼 개사구조를 술어 앞의 부사어와 술어 뒤의 보어를 동시에 개사로 인정한다면, 개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기능화 되기 때문에 이론의 일관성을 담보하기는 힘들다.

www.kci.go.kr

(11) a. 他在教室裏。　　b. 他在教室裏學習。
(12) a. 他陪小李看足球比賽。　b.*他陪了小李看足球比賽。
(13) a. 他看我打了球。　　b.*他看了我打了球。

예문(11)에서는 b구문의 '在'가 개사가 되면서 구문이 성립하지만, 예문(12)와 예문(13)의 b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구문에 두 개의 시간성을 지닌 술어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비록 이 세상에는 동일한 시간에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일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문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만을 중심으로 계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주어가 두 개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사화를 하나의 시간성으로 갈무리함으로써 구문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시간순서원칙은 '구문에 존재하는 두 개 이상의 동사는 언제나 먼저 행해진 순서대로 배열된다는 것'으로, 중국어의 연동식과 시간순서에 역행하는 어순의 개사화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戴浩一(1988)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어의 개사구문이나 특수구문에서 부사어가 되는 개사구조는 술어동작 이전의 화자의 심리상황을 설명한다고 전제한다. 이것은 중국어에서 부사어(狀語)의 분포위치가 술어 앞이라는 점을 화자의 심리성과 연관시켜 설명할 수 있으며, 시간순서원칙을 통한 개사화의 원인은 동작의 순서가 역순인 경우 앞의 동사가 왜 개사로 변하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설명하게 한다.

(14) 他們很高興地玩兒。
(15) 他們玩兒得很高興。
(16) 他去百貨買一件衣服。
(17) 我給你買一件衣服。

예문(14)와 예문(15)의 '很高興'은 비록 분포위치가 다르지만, '很高興'이 가지는 정도성은 서로 다른 어법기능의 성분으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밖에

www.kci.go.kr

없게 만든다. 하지만, 위의 두 예문을 통해 드러나는 차이점은 동작행위의 시간성이며, 다만 예문(15)에서 '玩儿'이 여전히 술어가 되는 것은 '술보구조'의 보어를 보충성분으로 간주하는 어법현상에 근거하고 있다.

예문(16)의 연동식과 예문(17)의 개사구문은 또 다른 시간적 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문(16)에서 동사 '去'와 '買'의 행위동작이 나타내는 시간순서는 순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예문(17)의 동사 '給'와 '買'는 오히려 그 논리적 순서가 역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때 역행구조 속의 '給'는 부사어로 기능하기 때문에 화자(주어)의 심리현상과 연계됨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인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개사구문은 단순히 제1동사인 개사와 제2동사인 중심술어와의 시간순서가 역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

4 보어와의 어순대비를 통한 부사어의 주관성

앞 소절의 예문(14)와 예문(15)의 대비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부사어와 보어의 어순대비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의 차이는 주관성과 객관성을 대비시킬 수 있는 주요한 형식기제가 될 수 있다. 즉 부사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술어가 표현하는 사건서술보다 화자의 심리과정에 먼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해, 술어의 서술행위 이전에 화자의 내부 심리에 미리 존재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술어 앞에 존재하는 부사어가 표현하는 의미는 술어에 후행하는 보어에 비해 주관성을 강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18) 這件襯衣有點兒大。
(19) 這件襯衣大一點兒。

예문(18)과 예문(19)의 한국어 번역은 모두 '이 셔츠는 좀 크다'라고 번역된다. 예문(18)에서 크다는 기준은 '화자의 판단'에 있으며, 예문(19)에서

www.kci.go.kr

는 치수의 크기와 관련이 주어진다. 이처럼 중국어에서 부사어와 보어라는 정반대의 어순구조를 통해 나타내는 의미차이는 바로 주관성에 있다. 하지만, 중국어에서 서로 다른 어법기능의 부사어와 보어가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부사어로 번역되는 것은 한국어의 표현에 순응하는 자연스런 구문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어 교학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의 어법분석은 단순히 의미구조를 객관적 논리관계로 파악함으로써, 구문을 통해 드러나는 화자의 주관성을 분석의 범주에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Ⅲ. 개사구조의 어법기능과 주관화

1. 개사의 어법기능과 주관화

지금까지 중국어의 '개사구조'에 대한 연구는 통시적이고 공시적인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개사라는 특수한 품사와 기능에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개사화를 통해 형성되는 '개사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형식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사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동식(連動式)이 존재한다는 것에서 개사화의 판단기준이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인의 심리과정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17] 이처럼 중국어 연구에서 개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그 연구를 멈출 수 없는 것은 그만큼 개사라는 품사가 중국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개사는 단순히 사전적 의미의 품사라기보다는, 통사적 변이에 의해서 형성된 임시적 기능어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

17) 張靜(1977) <"連動式"和"兼語式"應該取消>에서 중국어의 연동식과 겸어식의 두 범주에 대해 그 존재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www.kci.go.kr

면, 개사구조는 반드시 두 개 이상의 동사(구)가 존재하는 구문에서 제1동사(선행동사)의 어법화(기능화) 과정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사화 과정은 단순히 조사처럼 의미의 허화를 통한 어휘의 기능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동사 본래의 어법기능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목적어를 제어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작의 서술과정인 시간성의 상실은 반드시 후행하는 제2동사를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18]

동서양 사유방식의 차이나 부사의 분포위치를 볼 때, 중국어에서는 가장 후행하는 술어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중국어에서 개사로 활용되는 동사는 여전히 술어로도 기능하면서 동사와 개사의 이중적 품사성, 즉 '동개겸류사'의 형성 또한 이러한 사유관념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20) a. 他在家。(…에 있다)　　b. 他在家看書。(…에서)
(21) a. 他已經到北京了。(…에 도착했다)　b. 他到北京去了。(…에/으로)
(22) a. 他老跟着我。(…를 따르다)　　b. 他老跟着我逛街。(…와)
(23) a. 他正在用刀。(…를 사용하다)　　b. 他正在用刀切蘋果。(…로써)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왼쪽의 a그룹에서 술어로 기능하던 동사가 오른쪽의 b그룹에서는 모두 개사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예문(20)－예문(23)에서 제1동사(V1)가 개사로 활용되는 이유는 의미가 지니는 동작성의 상실에 있으며,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동작성은 모두 제2동사(V2)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도 대비시켜 볼 수 있다. 먼저 왼쪽 a류에서 밑줄 친 부분(在、到、跟、用)이 모두 동사로서 서술어(～다.)로 번역되고 있는 것에 비해, b류에서 동일한 낱말이 개사로

18) 부연설명을 하자면, 중국어에서 개사의 출현은 단순히 품사의 생성이라기보다는 부사어의 기능적 특징과 연관되며, 동사가 개사화 되는 주된 요인은 부사어라는 통사기능에 기인한 것이지 개별 품사의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개사는 개별적인 특성으로서는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어휘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www.kci.go.kr

서 부사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b류의 밑줄 친 부분(在、到、跟、用)가 개사로 기능화된 이유는 본래 이들 어휘의 의미 속에 내재하고 있던 동사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인지어법에서는 '동작성'의 상실을 '시간성의 상실'로 파악하며, 이러한 시간성 상실의 과정에는 시간순서원칙에 따른 부사어로의 기능화, 부사어가 표현하는 서술어에 앞선 화자심리 등은 바로 주관화를 설명하는 주요한 형식기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보면, 구문에서 부사어의 분포위치는 언어유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대개 부사어의 분포위치는 그 언어의 기본구조가 무엇인가에 따라 술어 앞뒤로 나타나게 된다.[19] 대개 부사어가 문미에 위치하는 영어구문에서 중심술어는 맨 앞의 제1동사가 담당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부사어의 보편적 분포위치가 술어 앞에 오는 중국어는 제일 마지막 동사가 중심술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영어와 동일한 '술어+목적어'의 기본구조를 가진 중국어에서 중심술어의 분포위치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부사어의 분포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중국어가 'S+V+O'식 언어와 'S+O+V'식 언어 중 어떤 언어유형에 속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와중에는 부사어의 분포위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인식을 보면 부사어로 표현된 구문보다는 보어로 표현된 구문이 더 강조를 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처럼 '술어+보어'구조가 '부사어+술어'구조보다 강조용법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보어구문이 부사어구문보다는 덜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어의 강조행위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으며, 보어 자체는 주관성을 표시하지 않는다고 전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건내용의 시간적 관계를 고려해 보더라도, 보어는 술어의 행위동작이 끝나고 난 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므로, 부사어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戴浩一(1988)과 李英哲(1983) 등에서 중심술어 앞

19) 이것은 'S+V+O'식 언어와 'S+O+V'식 언어의 차이를 통해 설명되는데, 대체로 전자는 부사가 문미에 오고, 후자는 술어 앞에 오는 것으로 규정한다.

www.kci.go.kr

의 'X+NP'가 화자의 심리과정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나, 중국어에서 '連……都 / 也' 등의 강조용법을 통해서도 나름대로 주관성이 부사어와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다.

사실 강조용법은 화자가 구문에서 특정부분을 기본구문과 다르게 표현하면서 화자의 주관성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구문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술어 뒤에서 동작발생 이후에 나타나는 목적어나 보어의 공간은 부사어의 심리현상과 대비되는 보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부사어가 표시하는 공간배경이 동작행위보다 앞서 심리현상과 연계된 공간이라면, 이와 반대로, 술어에 후행하는 보어나 목적어가 표시하는 공간은 동작이후에 나타난 구체적 배경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반대로, 중심술어 뒤의 'X+NP'가 표시하는 것은 동작 발생이후에 나타난 동작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사건 중심으로 살펴보면, 술어에 후행하는 보어의 서술행위는 바로 술어의 동작에서 보어를 거쳐 뒤의 목적어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술어와 목적어의 중간에 존재하는 보어 'X'는 술어의 동작이 목적어에 이르는 과정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VP+X+NP'에서 'X'의 역할은 동작의 진행이 어떤 단계를 표시하는 시간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4) a. 飛机飛上了藍天。
b. 飛机飛向了藍天。
(25) a. 火車開進北京。
b. 火車開往北京。

위의 두 예문에서 각각 a와 b는 모두 '명사(주어)+동사+방향동사+명사(목적어)'의 어휘적 특성을 통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존재하는 방향동사(X)가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에 따

www.kci.go.kr

라 a구문은 '술보구조'로, b구문은 '개사구조'가 '보어'가 되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것은 '上'과 '向' 그리고 '進'과 '往'의 차이를 동사와 개사라는 전제하에 진행된 분석이기는 하지만, '上'과 '進'의 목적성의 존재와 '向'과 '往'의 방향성의 차이를 통한 'X'의 의미지향은 여전히 술어에서 목적어로 동작방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문(24)에서 '上'과 '向'이 지향하는 곳은 여전히 '藍天'의 특정 지점이며, 예문(25)의 '北京' 또한 동작행위의 배경이 되는 전체 범위가 아닌 비행기가 향하는 특정지점으로 초점화된다. 이것은 'X'가 시간성을 가지고 술어의 동작을 목적어로 인도하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어휘적 특성에 지배되어 분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들 문장성분이 가지는 역할은 추향동사이든지 개사이든지 간에 모두 중심술어가 표시하는 시간과정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동작행위 결과나 상태를 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개사구조의 배경화와 주관화

인지어법에서 주장하는 '모습(小)과 바탕(大)'의 공간대비는 구문성분의 도치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주어)과 바탕(목적어)의 역전' 현상과 대비되고 있는데, 이는 개사(전치사)의 어법기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26) a. the lamp above the table (테이블 위의 램프)
b. the table below the lamp (램프 아래의 테이블)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역전현상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전치사의 치환이며, 어순을 역전시키고도 완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물체가 가지는 구체적인 관계를 전치사를 통해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모습과 바탕의 역전'현상과는 다르게 나타는데, 전치사의 치환이 아닌 조사와 밀접한 연관

www.kci.go.kr

성을 가지고 있다.[20] 즉 중국어에서 개념적으로 동일한 공간범주를 나타내는 'NP'가 'X+NP+V'구조와 'V+X+NP'구조라는 다른 분포위치를 통해 'NP'가 표현하는 공간범위에 차이를 두게 되는 것이다.

(27) a. 在桌子上放着一盏灯。
b. (有)一盏灯放着桌子上。
c. (把)一盏灯放在(了)桌子上。

예문(27)에서 중국어의 '모습과 바탕의 역전' 현상은 개사인 '在'의 변화와 문장의 완성도와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동태조사의 활용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예문(27a)에서 '着'를 '在'로 바꾸어 쓸 수는 없으며, 예문(27b)와 예문(27c)에서 '着'와 '在'의 차이는 바로 동작의 연결성이다. 즉 예문(27b)에서는 '放'과 '着'의 관계에서는 동작의 직접적인 연계성은 없으며, 동작의 완성이후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러한 배경화와 초점화 사이에는 동작의 시간성이 가지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며, '동개겸류사'의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조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 a. 張三到圖書館拿書。
b. 張三拿書到圖書館。
(29) a. 他到這兒坐公共汽車。
b. 他坐公共汽車到這兒。

교학어법의 분류에서 보면, 예문(28)과 (29)의 a구문에서 '到+명사'는 모두 '개사구조'로 간주되는데, 시간순서원칙에 근거하면 '연동문'이 되어야

20) '모습-바탕의 역전'이란 지각한 대상에 대해서 모습과 바탕의 역할이 역전되는 것으로, 모습으로 파악되었던 것이 배경이 되고, 바탕으로 파악되었던 것이 전경이 되는 것을 말한다.

www.kci.go.kr

한다. 단지 위의 두 a구문에서 전반부에 오는 '到'를 개사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到'의 시간성(서술성)의 상실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전체 구문이 전달하는 사건의 초점을 '拿書'에 둠으로써, 이때 '到'가 본래 '도달하다'라는 시간성이 상실되고 단순히 '拿書'의 배경으로 부사어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다만 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사어가 가지는 주관성에 의해 화자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반대로, (28b)와 예문(29b)에서 후반부 오는 '到'는 동사로 간주되는데, 이처럼 분포위치에 따른 품사의 차이를 나타날 수 있는 것도 공간의 초점화를 통해 시간성이 표현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0) a. 王老師在椅子上坐着。(앉기 전에 존재한 전체 의자의 배경)
b. 王老師坐在椅子上。(앉은 이후에 둔부와 맞닿은 의자의 특정 부분)
(31) a. 我們到北京飯店來。(북경호텔은 도달 이전의 목적지)
b. 我們來到北京飯店。(도착한 이후 주어가 존재하는 호텔의 특정 지점)

일반적으로 개사구문은 그 분포위치에 따라 개사가 미치는 공간범위는 다르게 나타난다. 즉 예문(30)에서 '在椅子上'이 나타내는 공간범위는 의자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사어의 공간과 보어(목적어)의 공간은 그 범위차이를 구별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관적 공간범위는 분명히 다르다. 즉 예문(30a)에서 화자는 '在椅子上'을 왕선생이 앉기 이전에 이미 심리 속에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坐'라는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나 배경으로서 의자가 포함하고 있는 모든 공간을 포함하게 된다. (30b)에서는 '在椅子上'은 '坐'의 행위가 다가가는 초점의 공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ww.kci.go.kr

Ⅳ. 특수구문과 개사구조의 주관화

1. '把자문'의 주관성 표현

일반적으로 '把자문'의 특징은 행위동작의 완료성과 그 행위동작 이후에 발생한 특정 사물의 변화, 혹은 행위동작의 결과로 나타난 모종의 현상에 대해 '처치'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언어학계에서 지금까지 주장되었던 '把자문'의 '처치성'에 제동을 건 것은 정작 발화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주어에 의한 처치가 아니라, 오히려 개사 把의 목적어가 바로 술어와 보어의 주체 행위자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33) 這個電影把我感動得哭了。
(34) 那幾張漂亮的照片把我吸引住了。

여기서 볼 때, '把자문'의 주요한 특징은 사실상 두 개의 과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把자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행위나 동작이 있어야 하며, 변화이후의 상태나 모종의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선행동작을 통하여 다음 동작이나 상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예문(33)과 (34)의 '把자문'에서의 주요술어는 심리동사인 '感動'과 '吸引'이 담당하고 있지만, '행위+결과'의 보어구조를 형성함으로써 '把자문'의 구성을 만족시키고 있다. 특히, 예문(33)의 '感動'이 표현하는 심리과정을 하나의 변화과정으로 인식한다면, 뒤의 보어인 '哭'가 없더라도 구문의 합법성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심리행위를 표시하는 知道, 曉得, 認識, 認得 등의 '알다'류 동사는 목적어를 전치시킬 때, 把자구조를 사용하지 못하고 직접 주어의 앞으로 와서 주제구문을 형성한다.

대개 '처치식'이라고 불리는 '把字文'은 개사 把와 명사(구)가 결합하여

www.kci.go.kr

개사구조를 형성하여, (개사+명사어)+술어+보어'의 구조로 구성된 구문을 말한다. 祝敏徹(1957)은 중국어의 처치식의 발전은 연동식에서 허화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목적어 후반부에 간단한 서술어가 부가되던 것이 초기 처치식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1] 또 王力(1958) 등은 把자문의 생성원인을 ① 목적어를 동사 뒤에 안배할 수 없을 때이거나, ② 서로 다른 의미를 표현할 때, ③ 어기 조절의 필요 ④ 처치의 강조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은 대체로 구문구조의 내부관계를 통해 얻어질 수 있지만,[22] ②나 ③, ④의 원인은 모두 주관성과 관련이 있다.

사실 처치성은 '주어가 목적어에게 행위 혹은 처치(처리)를 가한다.'는 것으로, 행위의 대상이 확정된 사물이거나 이미 특정의 사물에 대해 능동적 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처치' 개념은 '모종의 동작이나 혹은 원인으로 인해서 모종의 결과가 나타나거나, 동작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把자문'이 가지는 구조상의 필요조건은 술어(V) 뒤에 반드시 결과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분(R)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3] 특히 '把자문'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은 '把'의 목적어는 본래 중심술어의 직접목적어로서, 결과나 상태를 표시하는 성분인 보어가 설명하는 대상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36) a. 他打破了杯子。

21) 祝敏徹(1957) <論初期處置式>, 北京大學編 ≪語言學論叢≫ 제1집, 新知識出版社 참조.

22) 邵敬敏(1985)은 王力의 네 가지 원인을 소개하면서,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①의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①의 조건이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1) 沒有什麽口號提出來後便不能改了, 那是把口號固定化, 偶像化了。(2) 我們不能把它束之高閣。(3) 他把洞挖淺了。/ 他把書放在桌上。(4) 他把工廠辦成一朵花。(5) 他把杯子都打碎了。/ 他把房子也賣掉了。/ 他都打碎了杯子。/ 他也賣掉了房子。(6) 我要把我的錢, 送給朋友們, 散給窮人花。/ 她把頂針還給艾艾裝回口袋裏。

23) 邵敬敏(1985), p.233, 참조.

www.kci.go.kr

b. 他把杯子打破了。
(37) a. 他賣掉了房子。
b. 他把房子賣掉了。

예문(36a)와 예문(37a)에서 결과나 상태를 나타내는 성분(R)은 주어가 아닌 목적어 '杯子/房子'에 연계되어 동작이후에 나타난 그것들의 상태를 나타낸다. 예문(36b)와 예문(37b)가 a류와 다른 점은 他(그)의 '杯子/房子'에 대한 행위(破/賣)는 단순한 실수나 매매관계가 아닌 他의 의도적 처치라는 것을 화자가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8) a. 他推着門。→ b. 他把門推着。
(39) a. 他掛着畵。→ b. 他把畵掛着。
(40) a. 他唱着歌。→ b. *他把歌唱着。
(41) a. 他敲着門。→ b. *他把門敲着。

위의 예문(38-41) 우측의 b구문은 a구문의 변화형식으로, a, b 각 쌍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어순변화와 목적어의 확정성이다. 먼저 예문(40b)과 예문(41b)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목적어에 대한 동작의 지배방식과 윤곽의 설정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술어가 목적어 전체 윤곽의 지배를 통해 목적어가 확정성을 가지는 예문(38b)와 예문(39b)는 '把'자문의 성립에 문제가 없지만, 목적어의 일부분만을 지배하는 (40b)과 예문(41b)는 처치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즉 a, b 두 구문의 차이는 중국어 어법의 특징과도 일맥상통하는 어순변화와 그 변화의 형식기제인 개사(把)의 주관성 표현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확정성은 대개 인구어의 a/the와 같은 한정사를 통한 한정성(definitness)의 표현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비록 중국어에서는 인구어의 a/the와 같은 한정사가 없지만, '把'자의 기능은 담화과정에서 화자와 청자의 일방 혹은 쌍방의 해석에 의해 이해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형식기제이다.[24] 따라서 '把자문'에서 '把'의 목적어가 한정성을 지닐 수

www.kci.go.kr

있게 된 것도, 구문전환의 과정에서 목적어는 화자와 청자가 공감하는 윤곽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42) 張三把書放在桌子上。
(43) 李四把他氣死了。
(44) 他把一件衣服賣了。
(45) 他把那瓶啤酒喝光了。

위의 예문에서 '把+NP'구조의 구성성분은 명사, 인칭대사, 수량구, '지시대사+수량+명사'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예문(43)의 인칭대사나 예문(45)의 지시대사처럼 특정한 지시를 가진 성분을 제외하고는 상하문맥이나 언어 환경에 의해서 한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把字文'에서 受事者를 주어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구문의미의 중의성을 제거하거나, 일반구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한정 혹은 지정된 사물을 지칭하여 표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2. '被자문'의 주관성 표현

일반적으로 피동문은 '被자문'과 '무표지피동문'으로 나누어지는데, 대체로 '무표지피동문'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감정색체가 비교적 약한 서술문에 쓰여 사실 자체를 서술하며, 피동의미가 비교적 약하고 중성의 색채를 지닌다고 설명된다. 반면에, '被'자구문은 개사 '被'를 통해 대부분의 구문이 '모종의 원하지 않는 감정색체'를 드러내어, 어떤 사건이 피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46) 信我已經寫好了。

24) 이창호(1996)이나 신준호(1998)에서 모두 화용층위의 관점에서 한정성을 논의하고 있다.

www.kci.go.kr

(47) 車票賣完了。
(48) 房間打掃幹淨了。
(49) 衣服我疊好了。

위의 예문(46)-(49)는 모두 '무표지피동문'으로 '被'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혀 어색함을 가지지 않으며, 그 자체로서 이미 피동적 상황을 표시하기 때문에 '被자문'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설사 '信已經被我寫好了'처럼 표현한다할지라도 '被자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관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의 예문에서는 '被'의 주관성 인지기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50) a. 那本書(他)拿走了。
b. 那本書被(他)拿走了。
(51) a. 自行車(他)借走了。
b. 自行車被(他)借走了。

위의 두 예문의 각 a와 b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성분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또한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문(50a)와 예문(51a)은 被'자가 생략[25]되어 있는 '무표지피동문'이며, 예문(50b)와 예문(51b)은 '被자문'으로 두 구문 모두 강한 피동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구문은 피동의 정도 차이 혹은 감정색채의 차이 등의 주관성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본래 '被'자구문의 전통적 용법은 '유쾌하지 않는' 혹은 '뜻과 같이 되지 않는' 등의 감정색채를 지니므로, 예문(51)은 '那本書我早就想看了, 但是被他拿走了.'의 의미로 강한 감정색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언어의 발전과정에서 중성적이거나 혹은 긍정적(褒義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被자문」이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그 행위가 원하지 않은 피동적 상황임을 강조하는 주관성의 표현이다. 따라서 '被'자문이 지닌 의미는 여전히 부정적(貶義的) 성격을

25) 정확히 '생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는다.

www.kci.go.kr

강하게 띠고 있으며, '把'자문과는 반대로 모종의 행위가 화자가 원하지 않았던 것임을 강조한다. 또 회화체의 구문에서는 '被'자 이외의 '讓、叫、給' 등을 통해 피동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피해의식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중성적 색채를 나타낸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들 구문 또한 '被'보다는 좀 더 완곡한 표현을 하고 있을 뿐, 여전히 주관화 형식 기제를 사용한 주관성 표현으로 볼 수 있다.

(52) 衣服讓樹枝掛破了。
(53) 這個謎語叫小學生猜着了。
(54) 門給風吹開了。
(55) 他們的言語、文字、風俗、習慣和宗教信仰應被尊重。
(56) 道靜的心突然被這种崇高而眞擊的友誼激動了,以致不能自抑地流下了泪。

위의 예문들은 대개 주어가 사람(人)이 아니기 때문에, 강한 피해의식을 보일 수 없으며, 중성적 혹은 긍정적(褒義的) 성격의 구문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문이 '동작동사술어문'에서 보다 '심리동사술어문'에서 더 많이 보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관성 대비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표현은 그 낱말이 지니고 있는 어휘의미가 유쾌한 심리나 혹은 긍정적(褒義的) 의미를 함유하고 있는 思惟活動의 의미를 지닌 심리동사에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의미들은 부정의미가 강한 피동성의 '被'자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26]

이러한 심리동사 이외에도. '知道, 看見, 聽見' 등의 지각동사는 이성적 사고와 연관됨으로써 중성적 색채를 지니게 되는데, 만약 '被자문'에 사용되면 당사자가 '知道, 看見, 聽見'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서술한다고 설명되어진다.

26) 呂文華<"被"字句和無標誌被動句的變換關係>, ≪句型和動詞≫(1987) p.179, 참조.

www.kci.go.kr

(57) a. 他(早已)知道了我的秘密。
b. 我的秘密被他知道了。
(58) a. 他聽見了我的話。
b. 我的話叫他聽見了。

예문(57)과 예문(58)에서 평서문과 '被'자문의 대비는 바로 '객관적 사실성'과 '주관적 피동성'의 대립이다. 만약 지각동사가 주어의 심리를 능동적으로 표현하거나 혹은 특정 상황이 '未然의 사태'를 함유하고 있으면, 이 또한 부정의미의 '被자문'과 어울리지 못한다. 하지만, 피동적 심리를 강조하고자 할 때는 여전히 '被자문'을 형성하고 있으며, 심리동사와 주관성은 단순한 대립개념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이거나 대조적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술어동사가 표현하는 의미적, 기능적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가 그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사실 전형적인 피동문이 표현하는 '주관성'은 화자나 주체가 원하지 않은 사태를 당했다는 강한 피해의식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더 강한 피동성을 나타내는 '被'자문은 더 더욱 주어의 능동적 행위를 표시하는 심리동사와는 어울릴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被'자문이 심리동사가 술어로 쓰인 구문에 활용되게 되면, 심리동사가 표현하는 주어의 능동적 심리성과 피동문이 전달하는 화자의 주관의도가 서로 상충되면서 구문전체의 의미는 오히려 중성적 표현의 구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被자문' 또한 '把자문'이 '처치성'에서 탈피하는 것과 같이 점차 '피해를 당한'의 의미에서 탈피하여 단순히 피동표시의 역할로서의 기능화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59) 他被選爲辦主任了。
(60) 那輛汽車被他修理了。
(61) 他們被老師表揚過。
(62) 那張桌子被學生搬到那個房間去了。

www.kci.go.kr

(63) 作者總是希望自己的作品被更多的人知道。

위의 예문(59)-예문(62)에서 볼 수 있는 주어의 행위는 여전히 주체자의 적극적이니 행위가 아닌, 여전히 수동적이거나 혹은 피동적인 행위동작을 통해 완성된 사건들이다. 심지어 예문(63)에서 지각동사 '知道'가 '被'자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알기'를 행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어의 심리행위를 나타내는 '希望'은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의 주관성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 내용은 주어가 기대했거나 추구하던 일이 성사됨으로써, 오히려 긍정적(褒義的) 의미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 또한 '被자문'의 객관의미 '당했다'는 단순히 주체적인 행위로 이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被'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피동자체가 아닌 주어가 타인이나 외부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Ⅴ. 결 어

본 연구는 중국학계에서 개사구조에 대한 이중적 분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교학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첫째, 연구의 진행과정에서 이미 직접적으로 수업과정에서 적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력 향상에 그 나름의 효과를 보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응용한 원리와 이론의 전개는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보어기능의 개사구조에 대한 연구에 도움을 주리라 판단한다.

우리가 언어교제를 할 때 발화되는 구문의 선형배열은 무조건적 혹은 임의적으로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의미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의미제약은 화자가 담화목적에 의해 어순의 도치나 특정성분의 삽입이나 생략 등을 통해 '주관성'을 전달할게 되는데, 이러한 의미제약

www.kci.go.kr

과정에서 존재하는 의미는 반드시 논리관계에 근거한 어법제약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사실 주관성이란 화자가 사건에 대해 판단하고, 진술하고, 보도할 때, 자기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인지적 의미를 통해 투영해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만약 친히 경험한 것이거나 혹은 증거가 확실하다면 발화어기는 간결하고 긍정적일 것이다. 만약에 근거 없는 말이거나 주관적 억측일 경우, 발화의 어기는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형식으로 넘어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획득된 정보나 지식은 신뢰성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청자 또한 화자가 사용한 구문이나 어기들을 통해 그 신뢰성 여부를 추정하게 된다. 따라서 화자는 '신뢰성' 정도에 대한 형식기제를 통해 지식을 획득한 방식이나 그 지식을 발화하려는 사람의 의도를 언어구조와 연계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할 때, 특히 신정보일 경우에는 특정한 표현법을 통해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믿을만한 정도인지, 자기가 얼마나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를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2006a)에서 구문에서 드러나는 주관의미를 '화자주관성, 기능주관성 그리고 강조주관성'으로 구분하였으며,[27] '화자주관성'의 형식기제를 인식영역과 연계되는 부사어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화행영역과 연계되는 어기조사를 통해 표현되는 기능주관성과 구문형식의 변화를 통해 표현되는 강조주관성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먼저 서언에서는 개사구조가 부사어로서 부사어가 표현하는 주관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제2절에서 부사어의 주관성 표현을 살펴보았다. 먼저 기존의 어기범주와 주관성 관계를 통해 어기부사와 어기조사의 대비를 통해 부사어가 주관성 표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고찰하였다. 둘째는 시간성 원칙을 통해 술어에 앞서는 수식어가 주관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고찰하였으

27) 필자(2006a) 참조.

www.kci.go.kr

며, 아울러 보어와의 어순대비를 통해 부사어의 주관성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개사구조의 주관성 표현과 개사의 주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특수구문인 '把'자문과 '被'자문을 통해, 특수구식의 개사구조 또한 부사어 기능의 주관성 표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把'나 '被' 등의 개사는 주관화를 설명하기 위한 형식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중국어에서 어휘의 기능화문제, 부사의 허(虛)·실(實) 논쟁, 개사의 품사적 특징과 기능화 정도에 따른 구문의 귀납방안 등 여전히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지금까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의미분석에 대한 객관성 제고와 어법기능을 개념의미의 상실로 보는 작금의 어법이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분류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허점은 바로 구문에서 드러나는 '주관성'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근 인지언어학의 어법분석이 주관성이나 주관화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이러한 객관의미와 기능어의 한계성은 주관성을 통해 나름의 해결을 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參考文獻>

高名凱 ≪漢語語法論≫, 北京, 科學出版社, 1957.
屈承熹 著, 紀宗仁 協著 ≪漢語認知功能語法≫, 黑龍江人民出版社, 2005.
金昌吉 ≪漢語介詞和介詞短語≫, 南開大學出版社, 1996.
戴浩一・薛鳳生 ≪功能主義和漢語語法≫, 北京,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84.
石毓智 ≪語法的形式和理據≫,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2001.
申小龍 ≪語文的闡釋≫, 沈陽, 遼寧教育出版社, 1991.
沈家煊 ≪現代漢語語法的功能、語用、認知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5.
吳競存, 梁伯樞 ≪現代漢語句法結構與分析≫, 北京, 語文出版社, 1992.

www.kci.go.kr

袁毓林・郭銳 ≪現代漢語配价語法研究≫(二),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竟 成 <漢語的成句過程和時間概念的表述>, ≪語文研究≫ 제1기, 1996(총 58기)
戴浩一 <時間順序和漢語的語序>[黃河譯], ≪國外語言學≫ 제1기, 1988.
范 曉 <關於漢語的語序問題(一)(二)>, ≪漢語學習≫ 제5기, 제6기, 2001.
薛金强 <淺論英語逆序邏輯>, ≪外語和外語教學≫ 제12기, 2000.
李 杰 <試論現代漢語狀語的情感功能>, ≪甘肅高師學報≫ 제1기, 2005.
李英哲 <漢語語義單位的排列順序>, ≪國外語言學≫ 제3기, 1983.
林華東・蔣艷 <介詞虛化與V+V+Np的述賓化趨勢>, (≪漢語學習≫ 제1기, 2005.
劉繼超 <試論詞義的客觀性和主觀性> ≪西北師大學報≫ 제33권 제3기, 1996.
劉鑫民 <語義對成分線性位次的制約>, ≪語文研究≫ 제3기, 1996.
沈家煊 <判斷語詞的語義强度>, ≪語用研究論集≫, 北京語言學院出版社, 1994.
_____ <語言的"主觀性"和"主觀化"> ≪外語教學與研究≫ 제4기, 2001.
_____ <如何處置"處置式"?-論把字句的主觀性>, ≪中國語文≫ 제5기, 2002.
楊 寧 <語法配价、參與者、价語及介詞性價語>, ≪語文研究≫ 제3기, 1996.
吳門吉・周小兵 <意義被動句與被字句習得難度比較>, ≪漢語學習≫ 제1기, 2005.
張 靜 <連動式"和"兼語式"應該取消>, ≪鄭州大學學報≫, 제4기, 1977.
張伯江 <論"把"字句的句式語義>, ≪語言研究≫ 제1기, 2000.
_____ <被字句和把字句的對稱與不對稱>, ≪中國語文≫ 제6기, 2001.
張旺熹 <把字句的結構語義及其語用分析>, ≪語言教學與研究≫ 제3기, 1991.
趙彥春 <副詞位置變化與相關的句法—語義問題>, ≪漢語學習≫ 제6기, 2001.
趙淸永 <對被動句的再認識>, (≪北京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제6기, 1993.
陳 平 <試論漢語中三種句子成分與語義成分的配位原則>, ≪中國語文≫ 제3기, 1994
鄒智賢 <語言的相對性與認識的主觀性>, ≪求索≫ 제5기, 1989.
齊滬揚 <論現代漢語氣系統的建立>, ≪漢語學習≫ 제2기, 2002.
Langacker, R. W. *Subjectification*, Cognitive Linguistics 1: 1990.

www.kci.go.kr

Traugott, E. C. *Subjectification in grammaticalization*, Stein. D & Wright. S. 1995.

金正必 ≪현대한어 상어의 주관성 표현에 관한 연구≫, 경북대 대학원 博士論文 2006(a).

_____ <시간의 일차원성 원칙과 개사화> ≪中國語文學≫ 제48집 2006(b)

_____ <'X+NP'의 분포위치와 'X'의 쌍방향 기능화> ≪中國學≫ 제28집, 2007(a)

_____ <주관성 표현의 형식에 관한 연구> ≪中國語言硏究≫ 제25집, 2007(b)

박정구 <중국어 전치사의 분포적 연구> ≪중국언어연구≫, 제24집, 2002.

임지룡 <주관적 이동표현의 인지적 의미특성>, ≪담화와인지≫ 제9권-1, 1998.

장태원 <"把NP"의 화용적 의의-把의 주제표식기능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제27집, 1996.

_____ <'被'피동문의 'np1'과 'np2'의 의미연구>, ≪중국언어연구≫, 제13집, 2001.

<中文提要>

本硏究是爲了解決中國語言學界對於介詞結構的不同分析法引起的教學問題而作的。在硏究的同時, 把硏究中所運用的原理與理論直接運用於教學實踐中並已經取得了一定的成效。本人相信此硏究對於具有補語功能的介詞構造的硏究會有一定幫助。

本硏究在第二節裏觀察了狀語的主觀性表達, 首先通過基本的語氣範圍和主觀性關系, 語氣副詞與語氣助詞之間的對比, 狀語與主觀性表達之有密不可分的關系進行了考察。第二, 根據兩個時間原則來考察前置修飾語是具有表示主觀性的這一現象。在第三節裏主要是介紹了介詞結構的主觀性表達與介詞的主觀化過程。第四節是通過對特殊句型"被"字句與"把"字句的硏

www.kci.go.kr

究，說明特殊句式中的介詞結構也具有狀語功能，與主觀性表達具有密切的聯系。

本研究成果在於，就漢語詞語的功能化問題，副詞的虛與實的爭論，隨著介詞的詞類特征及功能化程度而帶來的語法方面的歸納方案等一直有著爭議的問題提供了一些見解。直到現在都有爭議的這些問題一直都是以客觀追求來分析意義，把喪失了概念意義和功能化看做同一個問題，而忽視了語法結構中存在的“說話者的意圖”。最近，根據以主觀性及主觀化爲中心展開的認知語法研究情況來看，客觀地分析意義與語法上的限制性是通過主觀性分析能夠解決一部分問題的。

주제어 : 개사, 개사구조, 특수구식, 주관화, 주관성, 인지어법, 부사어

www.kci.go.kr